

2012
October 5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Weekly Healthcare Industry Trends



포커스

미 상무부의 일본 화장품 시장 현황 분석

정책동향

[미국] 미 FDA, 항균제 개발 지원 태스크포스 신설
[프랑스] 프랑스, 낙태비용에 100% 건강보험 적용
[글로벌] 일·이라크, 의료분야 협력 강화
[중동] 요르단·UAE, 의료관광 선호 국가로 부상

산업동향

[글로벌] 무디스, 글로벌 제약산업 전망 '안정적'으로 상향조정
[독일] 독 최대 통신판매 약국 사니카레 파산 신청
[일본] 일 소니, '20년 의료기기 매출 2천억엔 목표'
[글로벌] 미 엘리자베스 아덴, 증강현실 향수 마케팅 전개

신규보고서

[미국] 미국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현황과 대책
[캐나다] 고령화 사회 캐나다의 헬스케어 산업

포커스

- 미 상무부의 일본 화장품 시장 현황 분석 1

정책동향

- [미국] 미 FDA, 항균제 개발 지원 태스크포스 신설 5
- [미국] 미 캘리포니아, 청소년 동성애자 '전환치료' 금지 5
- [영국] 영국, '메모리 레인' 거리로 치매환자 기억력 회복 지원 6
- [프랑스] 프랑스, 낙태비용에 100% 건강보험 적용 6
- [글로벌] IMS헬스, 블록버스터 의약품 기준 17억5천만불로 상향 주장 7
- [EU] 스위스, 금연강화법 국민투표 부결 7
- [글로벌] 일·이라크, 의료분야 협력 강화 8
- [중동] 요르단·UAE, 의료관광 선호 국가로 부상 8

산업동향

- [글로벌] 무디스, 글로벌 제약산업 전망 '안정적'으로 상향조정 9
- [미국] 미 매케슨, 버지니아에 대형 의료기기 유통센터 설립 9
- [미국] 미 바이오젠 등 특수 의약품 업체, 총이익률 우수 10
- [독일] 독 최대 통신판매 약국 사니카레 파산 신청 10
- [EU] 덴마크 룬트백, 항우울제 '보르티옥세틴' 승인 신청 11
- [일본] 일 소니, '20년 의료기기 매출 2천억엔 목표' 11
- [미국] 미 컬럼비아대, 피부세포로 망막세포 제작 성공 12
- [미국] 미 메이요클리닉, 알츠하이머 치료 가능 효소 발견 12
- [일본] 일 주가이, 혈우병 지혈효과 항체 'hBs23' 개발 13
- [일본] 일 도요보, '파이토폴라빈-S' 추출...항노화 스킨케어 가능성 13
- [글로벌] 미 엘리자베스 아덴, 중강현실 향수 마케팅 전개 14
- [미국] 미 아리스트크래트, 생체분자물질로 스킨케어 제품 개발 추진 14

신규보고서

- [미국] 미국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현황과 대책 15
- [캐나다] 고령화 사회 캐나다의 헬스케어 산업 16

포커스

미 상무부의 일본 화장품 시장 현황 분석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화장품 및 개인관리용품 시장으로 평가. 본 자료는 미국 상무부가 '12년 8월 발표한 '일본 화장품 시장 개요(Japan : Cosmetics Market Overview)'를 통해 일본 화장품 시장의 특성 및 현황, 외국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시 유의사항을 고찰

□ 일본 화장품 시장 개요 및 특성

- (개요)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화장품 및 개인관리용품(personal care products) 시장으로 평가
 - 일본 시장은 세계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40% 이상의 비중을 보유
 - 화장품 제조에 있어 긴 역사와 경쟁력을 보유한 일본에서는 소비자들의 화장품 품질, 제품 가치, 브랜드 등에 대한 의식 수준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일본 시장은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공을 가늠하는 관문으로 인식
- (수요 특성) 일본 소비자들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매우 민감한데다 최근의 경기 침체와 실업 등으로 화장품 선택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는 추세
 - 소비자들의 기호가 계절·패션유행의 영향을 받고, 제품과 제품이 보여주는 가치제안(value proposition)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면 소비자들은 새로운 또는 다른 제품의 사용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 디자인·포장·홍보가 중요
 - 향후 노화 관리, 피부 조명, 수분 제품, 세안용품 등의 시장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
- * △신체 특정 부위나 닥터스 코스메틱(Doctor 's Cosmetics)과 같이 다기능성 또는 복합기능성 원료로 제조되어 효과가 빠른 고성능 피부관리제품, △유기·천연 제품, 고가제품, 특수제품, 브랜드제품 △남성용 피부관리제품 및 개인관리용품 등도

인기를 누릴 전망

□ 일본 화장품 시장 현황

- (시장 규모) '11년 일본 화장품 시장은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전년대비 3.6% 감소한 1조 3천675억엔 규모*
 - * 아래 <표>에서와 같이 엔화 가치가 달러당 '10년 87.78엔에서 '11년 79.90엔으로 상승하면서 달러를 기준으로 한 '11년 일본 화장품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평가
 - * '10년 엔/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1년 시장 규모는 155억불로 전년대비 축소
- '08년 세계금융위기의 충격을 받았던 일본 화장품 시장이 지진과 쓰나미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회복이 지연
- '12년 일본 화장품 시장은 최소 '11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건전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표> 일본 화장품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시장	16,765	17,436	18,030	18,498
현지 생산	16,176	17,158	17,566	18,068
수출	1,452	1,653	1,694	1,745
수입	2,041	2,091	2,158	2,175
환율(엔/달러)	87.78	79.70	79.07	79.70

*는 전망치

- (수입 동향) 일본 화장품 시장의 최대 수입국은 프랑스(시장점유율 27.2%), 미국(17.8%)이나 최근 중국(10%) 등이 부상하면서 프랑스와 미국의 시장점유율이 감소
 - '11년 최대 수입제품은 피부관리제품, 모발관리제품, 향수 등으로, 피부관리제품은 프랑스, 모발관리제품은 태국, 향수는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하는 것으로 조사
 - * 모발관리제품은 '10년 수입 규모가 전년대비 2배 성장했으며, '11년에는 그동안 미국이 우위를 유지하던 모발관리제품에서 태국이 미국을 추월

- 메이크업제품 수입의 경우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중국, 미국이 총수입의 71.5%를 차지
- '12년 화장품 수입 시장은 현재의 엔화 강세가 유지된다면 지속적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 **(업체 동향)** 일본에는 약 4천개의 화장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약 13만개의 브랜드 아이템이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
 - 일본 3대 화장품 제조업체인 시세이도(Shiseido), 가네보(Kanebo), 고세(Kosé)는 고급 제품에서부터 저가 제품까지 모두 커버
 - * 일본에 진출한 외국 브랜드로는 P&G, 에이본, 에스테 로데, 로레알, 레브론, LVHM 등
 - 제약업체, 식음료제조업체, 필름제조업체 등이 생명공학, 나노기술, 발효기술, 산화방지기술 등을 앞세워 일본 화장품 시장에 신규 진출
 - * (사례) 후지필름(Fujifilm)은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한 콜라겐 재료와 산화방지 프로세스를 적용해 일본 피부관리시장에 진출했는데, 이러한 나노기술은 색바램을 방지하는 필름 제조 방식의 부산물
 - 소매업체들이 위탁 제조를 기반으로 자체 브랜드를 런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위탁 제조업체들의 자체 브랜드 런칭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
 - * (사례) 카탈로그 통신판매업체인 센슈카이(Senshukai)는 자체 개발한 모발관리 제품을 런칭
- **(유통 채널)** 일본에서 화장품은 체인 스토어 시스템, 일반 판매대리, 다이렉트 마케팅 등의 채널을 통해 유통
 - 미국과 유럽의 고급 브랜드들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보유한 소매 채널이나, 백화점카운터·화장품전문점·부티크 등 카운슬링 기반 판매 시스템을 갖춘 자유연쇄점(voluntary chain store)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

- 일반 판매대리는 제조업자-도매상-소매상으로 이어지는 가장 전통적인 채널로 기초화장품, 모발관리제품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저가 제품이 유통
 - * 수입 제품의 많은 수가 일반 판매대리를 통해 유통되는데, 도매업자가 직접 수입한 후 소매상에 판매를 하거나 수입업자가 수입을 해서 도매상으로 판매
- 다이렉트 마케팅은 방문 판매*, TV 홈쇼핑, 우편 판매,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다른 채널에 비해 시장 접근이 신속하다는 점에서 다이렉트 마케팅을 이용하는 수입 브랜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 * 일본에서는 에이본, 암웨이, 뉴스킨 등 방문 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이 합법적으로 운영 중

<표> 일본 화장품 유통 채널 비중

(단위 : %)

유통 채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체인 스토어 시스템	32.3	31.8	30.9	29.6	28.6
일반 판매대리	33.7	33.8	34.0	34.4	34.6
다이렉트 마케팅(무점포)	26.1	26.3	26.9	27.7	28.2
기타	7.9	8.1	8.2	8.3	8.6

□ 일본 화장품 시장 진출시 주의 사항

- (소비자 특성 이해) 일본 소비자들은 브랜드와 품질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포장 디자인이나 마감이 상당히 중요
 - 새롭게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외국 브랜드는 브랜드 인지도 개발, 사용자 교육 등에 투자해야 할 필요
 - 일본은 통계를 이용한 효능 광고가 금지되어 있는 등 광고 내용 규제가 미국에 비해 심한 편이므로 제품 이미지, 질감, 향기와 같은 요인이 소비자 구매를 결정하는데 중요
- (진출 방식) 일본에서 화장품을 판매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지방 행정 당국으로부터 화장품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은 일본 수입업자를 선택하거나 일본내 자회사 설립을 고려할 필요

정책동향

미 FDA, 항균제 개발 지원 태스크포스 신설

- 미 식품의약국(FDA)은 항균제 개발을 지원하는 조직인 ‘항균성 의약품 개발 태스크포스(Antibacterial Drug Development Task Force : ADDTF)’를 신설
 - ADDTF는 △항균제 개발 현황 파악 △항균제 개발 가이드라인 평가·개정 △항균제 개발을 위한 산학 연구협력 지원 등 역할을 수행
 - ADDTF는 FDA 산하 약물평가연구센터(CDER) 소속 과학자와 임상의 19명으로 출범하며, 정부기관·제약업계·학계 등과 제휴 및 협력 관계를 구축
 - 이번 태스크포스 신설은 지난 '80년대 이후 FDA 승인을 획득한 항균제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균제가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면서 내성이 강화, 글로벌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데 대한 대처
- * FDA에 의하면 병원감염 유발 세균의 70% 이상이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항균제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에 내성을 보유 [RTT News, 2012.09.26]

미 캘리포니아, 청소년 동성애자 ‘전환치료’ 금지

- 제리 브라운(Jerry Brown)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청소년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
 - 브라운 주지사는 동성애는 병이 아니므로 전환치료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동성애 권리 옹호론자 입장을 수용, '13년부터 전환치료를 금지한다고 설명
- * 금지 법안은 테드 리우(Ted Lieu) 주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18세 이하 청소년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성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심리치료를 불법화
- 이번 결정에 캘리포니아심리협회(California Psychological Association), 캘리포니아결혼가정요법사협회(California Association of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s) 등 동성애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피력
-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금지 법안이 자녀를 올바른 길로 양육하기 위한 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의학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을 정치가들이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 [Washington Post, 2012.10.02]

영국, ‘메모리 레인’ 거리로 치매환자 기억력 회복 지원

- 영국의 요양원 그로브케어(Grove Care)가 노인 치매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 '50년대 풍경을 재현한 ‘메모리 레인(memory lane, 더듬어 가는 기억)’ 거리를 조성
 - 메모리 레인에는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 '50년대 분위기의 선술집· 카페· 야채가게· 우체국· 버스정류장· 전화부스 등이 설치됐으며, 당시 개봉영화의 포스터와 광고 등도 부착
 - 메모리 레인에서 80여 치매환자들은 물품을 직접 구입하거나 방문객들과 함께 차를 마시는 등 휴식을 취하면서 과거를 회상
 - 그로브케어는 대다수 치매환자들이 어디로든 가서 마음에 활력이 되는 활동을 하길 희망한다며 이들이 친숙한 풍경 속에서 의사 및 영양사 등과 과거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 상실된 기억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
- * 이와 관련, 영국 엑시터대의 '09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동 시대 사람들과 함께 과거 일을 가지고 대화를 나눈 치매환자들은 기억력이 평균 12%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
 [Telegraph, 2012.09.21]

프랑스, 낙태비용에 100% 건강보험 적용

- 프랑스 정부는 '13년부터 낙태비용 100%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
 - 이번 결정에 따른 '13년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3천170만 유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 프랑스에서는 지난 '75년부터 임신 12주까지 낙태가 허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낙태비용의 70~80%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 * 지난 '10년 프랑스에서는 22만5천건의 낙태가 이루어졌으며, 낙태비용은 건당 200~450 유로 수준
- 그 동안 프랑스 낙태 옹호론자들이 낙태비용의 완전 건강보험 적용을 주장해 왔으며, 올랑드 신임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여성들이 주요 병원에서 낙태할 수 있도록 낙태비용 100%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

[AFP, 2012.10.02]

IMS헬스, 블록버스터 의약품 기준 17억5천만불로 상향 주장

- 미국의 보건관련 시장조사업체 IMS헬스(IMS health)는 현재 연간 매출 10억불 이상인 블록버스터 의약품 기준이 17억5천만불 이상으로 올라야 한다고 주장
 - 현재 사용되는 기준은 지난 '87년 제정된 것으로, 인플레이와 화폐가치 변동 등을 감안할 경우 오늘날의 제약산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
 - '87년 매출 10억불 이상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4%였으나 24년이 경과한 '11년에는 63억불 이상 제품의 비중이 0.74%
 - * '11년 63억불 이상 매출을 기록한 제품은 리피토, 플라빅스, 세레타이드, 넥시움, 세로퀼, 크레스토, 엔브렐, 레미케이드, 휴미라 등 9개
 - 10억불을 기준으로 하면 '11년 블록버스터 제품은 116개이나 17억5천만불로 변경하면 55개 제품이 블록버스터로 분류
 - 한편 지난 '02년에는 1차 치료제가 블록버스터 제품의 70% 정도를 점유했으나 '11년에는 44%로 감소한 가운데, 현재 블록버스터 제품들은 1차 치료제에서 전문 치료제로 이동하는 추세 [Fiercepharma, 2012.09.18]

스위스, 금연강화법 국민투표 부결

- 스위스 호텔·식당 내 금연 규제를 강화한 금연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
 - 유권자의 3분의 2가 반대한 가운데, 26개 칸톤(canton, 州)중 제네바에서만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으며 나머지 주에서는 반대가 찬성을 압도
 - 호텔과 식당 업계는 금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지금까지 비흡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대규모 투자가 물거품이 되었을 것이라며 환영했으나 스위스 폐질환학회는 아쉬움을 피력
 - * 폐질환학회는 밀폐된 공간에서 8시간 근무할 경우 담배 15~38 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으며 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강화된 금연법 개정안을 발의
 -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난 '10년 공공장소 및 밀폐된 공간에 적용하는 금연법을 제정했으나 예외 규정이 많고 전체 칸톤에 적용되지 않은 한계를 보유한 가운데 현재 스위스 국민의 흡연율은 27%로 추정 [Swissinfo, 2012.09.23]

일·이라크, 의료분야 협력 강화

- 일본과 이라크 정부는 지난 9월26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건강관리합동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
 - 이날 협의회에서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참가해 △일본의 대이라크 의료기기 수출 확대 △이라크내 병원 건설 △이라크 의료진 육성 등 협력 방안을 논의
 - 이라크와의 협력과 관련, 일본은 '13년부터 바그다드에 의료협력 거점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도시바와 히타치메디컬시스템즈 등 민간기업은 의료기기 수출을 확대하면서 현지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도 병행할 예정
 - * 이라크에서 의료시설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라크 정부는 현재 30개의 병원 신축을 검토 중
 -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은 국내정세가 불안한 국가에서 의료수요가 크다고 판단, 이라크에 대한 민간기업의 진출을 개발원조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 [日本經濟新聞, 2012.09.26]

요르단·UAE, 의료관광 선호 국가로 부상

- 전 세계적으로 50개국 이상이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의료관광을 육성할 계획인 가운데 중동 특히 요르단과 UAE가 의료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국가로 부상
 -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은 헬스케어 시스템이 우수하고 비용이 저렴해 미국인 환자가 자국 내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거나 유럽에서 선택진료를 받는 것보다 평균 20-40% 비용 절감이 가능
 - * 딜로이트컨설팅(Deloitte Consulting) 자료에 의하면 지난 '07년 외국으로 의료관광을 떠난 미국인 환자는 75만명이며 '08년에는 150만명으로 2배 증가
 - 의료관광객들은 일반 검진과 치료뿐 아니라 성형과 치아복원 등 미용과 관련된 수술을 받기 위해서도 요르단과 UAE를 방문
 - 요르단은 지난 '10년 23만4천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10억불의 의료수익을 창출한 가운데 현재 10억불을 투입해 메디컬시티를 건설 중('14년 완공 예정)이며, UAE는 두바이헬스케어시티를 건설해 '11년에 전년 대비 10% 증가한 5만명의 외국인 환자 유치에 성공 [Greenprophet, 2012.09.24]

산업동향

무디스, 글로벌 제약산업 전망 ‘안정적’ 으로 상향조정

-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Moody's)가 글로벌 제약산업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
 - 무디스는 글로벌 제약업계가 특허만료 여파로 인해 향후에도 수익에 제약을 받겠지만 지난 12개월만큼 심하지 않아 수익이 올해 말 최저점에 도달한 뒤 '13년에는 반등할 전망이라며 상향조정 이유를 설명
 - * 화이자, 머크, GSK 등 글로벌 제약업체들은 일부 블록버스터 제품의 특허만료로 매출이 감소되면서 감원과 아웃소싱 등 긴축 정책을 시행
 - 그러나 무디스는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지출을 제한하려는 각국 정부의 정책이 글로벌 제약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
 - 특히 유럽 각국 정부가 제약업계에 약가 인하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강조 [PMLIVE, 2012.09.26]

미 매케슨, 버지니아에 대형 의료기기 유통센터 설립

- 미국 의료기기 유통 및 헬스케어 정보기술 제공업체인 매케슨(McKesson)사가 3천7백만불을 투입, 버지니아주 프레더릭(Frederick) 카운티에 대형 의료기기 유통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
 - 새로 설립되는 유통센터는 버지니아를 비롯해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노스캐롤라이나 등 인근 주의 병원, 의료센터, 장기요양시설, 양로원 등에 의료 및 수술 장비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
 - 밥 맥도널(Bob McDonnell) 버지니아 주지사는 매케슨사가 유통센터를 설립하는 데 15만불의 주정부 보조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인력을 채용·훈련시킬 수 있도록 기업지원국을 통해 편의를 제공할 계획
 - 매케슨사는 유통센터에 205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 매케슨 전체 종업원 수를 1천명으로 증가시킬 계획 [San Francisco Business Times, 2012.09.25]

미 바이오젠 등 특수 의약품 업체, 총이익률 우수

- 미국의 의약품 전문지 팜이그젝(Pharm Exec)이 글로벌 주요 24개 제약업체 '11년도 매출 총이익률을 분석한 결과, 바이오젠 아이덱(Biogen Idec) 같은 특수 의약품 업체들의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4개 제약업체 매출 총이익률>

순 위 ('11년)	순 위 ('10년)	기업	총이익률 ('11년)	총이익률 ('10년)	순 위 ('11년)	순 위 ('10년)	기업	총이익률 ('11년)	총이익률 ('10년)
1	1	바이오젠아이덱	86.81%	87.01%	13	13	GSK	71.60%	72.81%
2	2	셀젠	85.27	85.70	14	17	화이자	70.55	68.80
3	5	엘러간	83.55	82.14	15	11	노바티스	69.82	73.93
4	3	암젠	82.66	83.32	16	16	J&J	68.93	70.00
5	4	샤이어	80.33	82.82	17	18	머크	65.92	59.94
6	7	노보노디스크	80.13	79.84	18	15	엔도	60.99	70.41
7	8	AZ	79.82	79.48	19	20	애보트	60.26	58.55
8	6	릴리	79.12	81.06	20	19	사노피	58.00	59.61
9	9	포리스트	77.31	77.17	21	21	테바	51.97	56.23
10	10	길리아드	74.94	76.47	22	22	밀란	42.10	40.68
11	12	BMS	74.02	72.93	23	24	호스피라	35.09	39.29
12	14	로체	72.66	72.35	24	23	왓슨	34.34	39.38

- '11년 24개 업체의 평균 총이익률은 68.58%로 '10년 69.58%에서 1% 포인트 하락 [Pharm Exec, 2012.09.18]

독 최대 통신판매 약국 사니카레 파산 신청

- 독일 최대 통신판매 약국인 사니카레(Sanicare)가 니더작센주 오스나브뤼크(Osnabrueck) 지방법원에 통신판매 부서 파산을 신청
 - 사니카레측은 요하네스 뮌스터(Johannes Moenter)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의 사망으로 인해 향후 경영 환경이 불투명해 졌다며 파산 신청 이유를 설명
 - * 그러나 파산은 통신판매 부서(종업원 수 342명)에 한정된 것으로, 온라인 등 다른 부서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
 - 오스나브뤼크 법원은 법률업체 그뢴다 앤 파트너(Grönda & Partner)사 랄프 뷔닝(Ralph Buening) 변호사를 통신판매 부서 법정관리인으로 선임
 - 사니카레는 120만명의 고객을 보유한 독일 최대 통신판매 약국으로 '09년 4억2천7백만 유로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중 통신판매 사업부 매출은 1억9천7백만 유로 [Die Welt, 2012.09.28]

덴마크 룬트벡, 항우울제 ‘보르티옥세틴’ 승인 신청

- 덴마크 룬트벡(Lundbeck)이 새로 개발한 다중양식(multimodal) 항우울제 보르티옥세틴(vortioxetine)의 허가 신청서를 유럽의약품청(EMA)에 제출
 - 보르티옥세틴은 수용체 활성을 조절하고 재흡수를 저해하는 다중양식 기전으로 작용하는 약물로, 룬트벡이 지난 '07년 9월 일본 다케다와 공동개발 및 판매촉진 제휴를 체결한 뒤 개발을 진행
 - * 보르티옥세틴은 그 동안 ‘Lu AQA21004’라는 코드명으로 통용
 - 룬트벡은 5천명 이상의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5~20mg에 이르는 다양한 용량의 보르티옥세틴을 복용토록 한 임상시험에서 유의할 만한 성과가 도출됨에 따라 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
 - 유럽에서 항우울제가 허가 신청되기는 지난 '07년 이래 이번이 처음이며, 룬트벡은 올해 안으로 미국과 캐나다, '13년에는 일본에 허가를 신청할 계획

[EPG Online, 2012.09.24]

일 소니, '20년 의료기기 매출 2천억엔 목표

- 일본 전자업체 소니는 오는 '20년 의료기기 매출 목표를 2천억엔으로 설정
 - 이와 관련, 소니는 올 연말 광학기기업체인 올림푸스와 공동 설립하는 수술용 내시경 사업회사의 '20년 매출 목표를 전체 의료기기 매출 목표의 1/3 정도인 6백억엔, 시장 점유율 목표를 20% 이상으로 설정
 - 양측은 소니의 3D 및 고화질 영상 ‘4K’ 기술을 채택한 첨단 내시경과, 올림푸스의 렌즈와 소니의 센서를 결합한 첨단 의료기기 개발에 주력할 방침
 - 당초 소니는 병원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모니터 등 의료기기 제작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 중장기 의료기기 매출 목표를 1천억엔으로 설정했지만 올림푸스와의 제휴를 계기로 목표를 2배 상향 조정
 - 한편 올림푸스는 소니측의 요청에 따라 이사 1명을 소니측에 배정할 방침

[日本經濟新聞, 2012.10.01]

미 컬럼비아대, 피부세포로 망막세포 제작 성공

-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팀은 인간 피부세포로 만든 유도만능줄기세포(iPS)로 망막세포를 제작해 망막 질환을 치료하는 쥐 실험에 성공했다고 분자의학(Molecular Medicine)지를 통해 발표
 - 연구팀은 iPS로 환원한 인간 피부세포를 성장인자들이 혼합된 배양액에 넣어 망막 감광세포 아래쪽에서 망막세포로 분화시킨 뒤 시력을 상실한 쥐 34마리의 오른쪽 눈에 주입
 - 그 결과 대다수 쥐들에게서 망막세포가 재생되면서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고 그 기능이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우려했던 종양 형성 등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 이 망막세포는 1차적으로 감광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광선 또는 열의 과잉노출과 세포조직 파편으로부터 감광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
 - 연구팀은 향후 동물실험을 수차례 더 거친 다음 3년 안에 황반변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 [Science Daily, 2012.10.01]

미 메이요클리닉, 알츠하이머 치료 가능 효소 발견

- 미국 메이요클리닉 연구팀은 ‘BACE2’ 라는 효소가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수 있다고 분자신경퇴화(Molecular Neurodegeneration)지를 통해 발표
 - 연구팀은 수백 여 효소를 대상으로 베타 아밀로이드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BACE2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
 - * 베타 아밀로이드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속에서 축적되는 독성 단백질
 - BACE2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생성하는 BACE1과 유사한 효소이지만, 베타 아밀로이드에 대해서는 상반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
 - 연구팀은 BACE2가 손상되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 HIV 치료제 등 일부 약물이 BACE2를 억제해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 [4-traders, 2012.09.24]

일 주가이, 혈우병 지혈효과 항체 ‘hBs23’ 개발

- 일본 주가이제약(中外製藥)과 나라현립의대(奈良県立医科大) 공동연구팀은 원숭이 실험을 통해 **혈우병에 지혈 효과가 있는 새로운 항체 ‘hBs23’**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지를 통해 발표
 - 전체 혈우병의 80%를 차지하는 혈우병A 환자는 지혈에 필요한 12개 혈액 응고인자 중 제8인자가 결핍된 상태로, 환자의 다른 인자 2개를 결합하면 제8인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왔으나 결합에 기술적 어려움이 존재
 - 그러나 공동 연구팀이 유전자 조작기술을 활용해 2개의 인자를 연결하는 ‘hBs23’ 항체를 개발하고 제8인자가 결핍된 원숭이에 투여한 결과, 투여하지 않은 원숭이에 비해 지혈 효과가 1.3배 높아진 것으로 확인
 - 한편 혈우병은 1만명 중 1명꼴로 발생하며 결핍된 제8인자를 주사하는 치료법은 존재하나 환자의 30% 정도에는 주사한 인자를 이물질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항체가 생성 [毎日新聞, 2012.10.01]

일 도요보, ‘파이토폴라민-S’ 추출...항노화 스킨케어 가능성

- 일본 도요보방직(東洋紡績)이 폴리아민(polyamine) 성분을 다량 함유한 ‘**파이토폴라민-S(PhytoPolamine-S)**’를 콩의 배아에서 세계 최초로 추출하는 데 성공, 항노화 스킨케어 제품이 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 폴리아민은 푸트레신(putrescine), 스페르미딘(spermidine), 스페르민(spermine) 등 지방 계열 화합물과 직선 사슬형으로 결합된 아미노 물질로 피부세포 구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임상시험에서 폴리아민은 피부 섬유모세포 내부의 세포활성과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했으며, 도요보방직은 ‘파이토폴라민-S’를 피부에 도포했을 때도 동일한 효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
 - * 폴리아민은 다양한 과일과 화훼류가 환경적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강화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
 - 도요보방직은 화장품 업계에서 안전성 등을 이유로 천연물 소재를 찾는 수요가 급증해 왔으며 **파이토폴라민-S가 항노화 스킨케어 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 [Cosmeticsdesign-Asia, 2012.09.25]

미 엘리자베스 아덴, 증강현실 향수 마케팅 전개

- 미국 화장품 업체 엘리자베스 아덴(Elizabeth-Arden)이 영국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스마(Aurasma)의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을 이용, 새로 개발한 ‘원더스트럭 인첸티드 테일러 스위프트(Wonderstruck Enchanted Taylor Swift)’ 향수 마케팅을 전개하기로 결정
 - 증강현실은 사용자가 직접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에 3차원의 가상물체를 보여주는 기술로,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라 더욱 각광
 - 엘리자베스 아덴은 원더스트럭 트위터 채널 @Wonderstruck과 페이스북 탭(www.WonderstruckTaylorSwift.com) 등 소셜 미디어에 등록된 소비자에게 향수 샘플을 제공하고, 샘플 표지에 모바일 앱 ‘오라스마 라이트(Aurasma Lite)’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도록 할 계획
 - 소비자는 스마트폰 뷰파인더를 통해 팝스타가 등장하는 비디오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으며 스크린 상에서 바로 원더스트럭 트위터 (<http://twitter.com/Wonderstruck>)에 접속하거나, 메이시스닷컴(Macys.com)의 향수숍 창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
 - 이 외 엘리자베스 아덴은 '13년 초까지 원더스트럭 인첸티드 향수의 스페셜 디지털 콘텐츠도 오라스마 라이트 앱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

[Scents and Fragrances, 2012.09.19]

미 아리스토크래트, 생체분자물질로 스킨케어 제품 개발 추진

- 미국의 화장품 업체 아리스토크래트 그룹 코퍼레이션(Aristocrat Group Corp)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이용, 줄기세포에서 뽑아낸 생체분자물질(biomolecular)로 스킨케어 제품 개발을 추진
 - 생체분자물질은 NASA가 생물반응기(bioreactor)를 이용해 개발한 물질로, 아리스토크래트는 생체분자물질을 함유한 혁신적 반중력(anti-gravity) 스킨케어 제품이 출시되면 경쟁업체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
 - 아리스토크래트는 또 극미중력(micro-gravity) 상태에서 제조한 줄기세포 분자물질들을 사용해 주름살과 다크서클, 거친 피부를 개선하는 새로운 크림도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

[4-traders, 2012.09.24]

신규보고서

미국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현황과 대책

- 미국제약협회(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 : PhRMA)는 '12년 9월 ‘알츠하이머 치료제 연구 : 좌절과 디딤돌(Researching Alzheimer’s Medicines : Setbacks and Stepping Stones)’ 보고서를 발표
 - PhRMA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이 부진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뒤, 개발 부진 원인을 **알츠하이머 발병 메커니즘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으로 진단
 - PhRMA는 치료제 개발업체들이 산학 공동 연구를 강화해 알츠하이머 발병 메커니즘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한 뒤 개발을 진행하고, 정치권은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

- 미국에서는 지난 '98년부터 '11년까지 14년 동안 총 101개의 알츠하이머 신약후보물질들의 개발이 실패로 무산된 반면 개발에 성공한 3개에 불과
 - 이러한 실패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의 어려움을 입증하는 증거
 -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오는 '50년 미국 내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총 1천350만 명(현재는 540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직접 투입되는 헬스케어 비용만 무려 1조불에 달할 것으로 우려
 - 현재 미국에서는 혈뇌장벽을 뚫고 들어가는 경증 인지장애 치료용 비강분무제와 전신 면역반응 없이 항체를 생성시키는 합성백신 등 1백여개의 치료제가 개발 중이나 성과를 예단하기는 시기상조

- PhRMA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학 공동연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학계·의료계·환자들 사이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알츠하이머 발병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 이와 함께 정치권에 대해서도 혁신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에 **적절한 지원과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을 구비할 것**을 촉구

고령화와 캐나다의 헬스케어 산업

-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글로벌데이터(Global Data)사는 '12년 9월 발표한 ‘헬스케어, 규제 및 의료급여 전망(Healthcare, Regulatory and Reimbursement Landscape-Canada)’ 보고서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 캐나다 헬스케어 시장을 분석·전망
 - 캐나다 의약품 시장은 지난 '10년 215억불 규모에서 연평균 9.9% 성장해 오는 '20년에는 459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의료기기 시장은 '11년 77억불 규모에서 연평균 5.2% 성장해 오는 '20년에는 122억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성장세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하는 정부의 보편적 건강보험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분석
 - '11년 캐나다 인구는 총 3천340만명이며, 출생률과 사망률이 엇비슷해 자연 인구 증가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캐나다에서는 지난 '10년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 였으나 정부 헬스케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를 기록
 - 캐나다 노인 인구 비중은 오는 '20년 1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헬스케어 지출 증가도 불가피할 전망
 - 헬스케어 지출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보편적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 중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헬스케어 지출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 * 캐나다 헬스케어 지출에서 정부 부문이 담당하는 비중은 70% 정도
 - 이런 가운데 캐나다 정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만성적 질환을 예방·관리 하는 정책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강력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법·제도를 통해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주력
- 한편 캐나다보건정보연구소(Canadian Institute of Health Information : CIHI)는 올해 캐나다 정부의 헬스케어 지출 규모가 인플레이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지난해보다 70억불 많은 2천1백억불을 기록, GDP의 14%에 이를 것으로 예상